전주-중국 쑤저우시, 국제협력 강화 힘 모은다

쑤저우 '국제의 날-한국 테마행사'서 향후 5년간 교류협력 촉진 · 교류 확대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인 전주시와 중국 쑤저우시가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보다 활발한 국제교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전주시와 중국 쑤저우시는 지난 10일 중국 쑤저우 문화예술센터에서 열린 쑤저우 '국제의 날-한국 테마행사'에서 향후 5년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1996년 3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25년째 다방면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양 도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및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관광산업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 교류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년 상호 방문 프로그램 구축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활발한 교류 협력을 강화키로 협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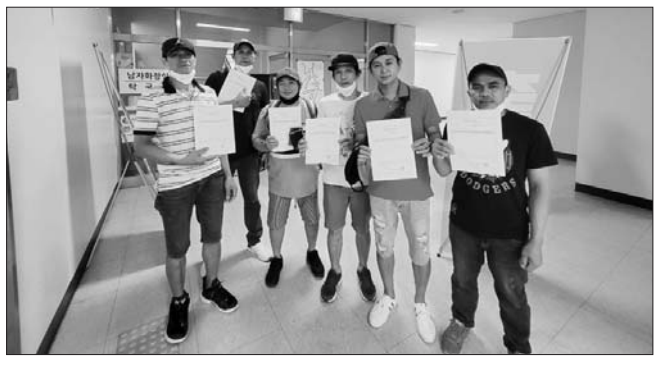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체결식에는 시를 대신해 천성환 주상하이총영사관 수석영사와 쑤저우 부시장이 참석했다.

시는 본 행사의 전주홍보관에 전주한지로 만든 전통공예품을 전시해 쑤저우 시민에게 전주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시간을 갖고, 양 도시의 25년간 오랜 교류역사를 회고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쑤저우는 전통문화를 간직하면서도 또 미래를 향해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교류가 어렵지만, 우호교류를 강화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향후 두 도시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중국 쑤저우시는 지난 10일 중국 쑤저우 문화예술센터에서 열린 쑤저우 '국제의 날-한국 테마행사'에서 향후 5년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전주시, 외국인 거주민 대상 접종 동행 · 통 · 번역 서비스 제공

전주시가 외국인 거주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돕고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전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동행 및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을 위한 온라인 사전예약을 하기 어려운 데다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센터나 접종병원을 방문할 시에도 의사소통에 애로를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전북이주여성상담소와 협력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동행을 원하는 외국인은 접종일 전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또는 전북이주여성상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외국인들의 코로나19 접종 예진표 작성과 사전 예진 등을 위해 3자간 전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사전예약을 위한 번역 서비스도 지원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주시외국인노동자쉼터에서는 사전예약 방법과 백신접종 절차가 담긴 안내문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 배포했으며, 시는 베트남인회, 중국동포모임, 자조모임 등 외국인 공동체와 SNS를 활용해 신속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데 주력해왔다. 또 현재까지 1000여 명이 넘는 외국인에게 백신 접종 상담을 진행하고, 352명의 미등록 외국인에게 사전예약 및 동행 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총 6700여명(67%)의 외국인이 1차 접종을 마쳤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외국인 유학생, 동포, 근로자 등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더 많고 좋은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한다

전주시, 내년 노인 일자리 1만6400여 개까지 확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노인들에게 더 많고 좋은 일자리 창출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나무를 심고 가꾸며 이웃에게 전파하는 초록정원사나 텃밭관리 방법 등을 전수해주는 도시농업가 등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일자리의 질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우선 시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 1만2576개, 올해 1만5382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시는 내년에는 1만6400여 개까지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만60~65세 미만의 은퇴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건강·방역 등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돌봄 서포터즈 등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득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사업별 경력 등이 고려돼 적합자가 선발된다.

또 전주 시정과 연계된 '어르신 초록정원사'나 '도시농업가', 24시간 안심출동(병원동행, 전구교체 등 일상서비스) 등의 사업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시는 맑은물지킴이,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단, 시니어 맥가이버, 문화재 알리미, 환경깨그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농촌진흥청 등 지역 내 기관·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직업훈련이 필요한 취·창업 희망자에게는 맞춤형 교육도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들을 내실화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주력키로 했다. 일례로 올해 254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통합돌봄 서포터즈의 경우 이동형 VR(가상현실)을 활용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수행 역량을 높여주기로 했다. 또한 건강한 노인들이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보살피는 사업으로 올해 1300여 명이 참여한 노노케어 사업의 경우에도 돌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0년도 노인일자리 전국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평가'에서도 전주시니어클럽이 대상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가 최우수상에,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이 복수유형 우수상을,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은 단일유형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 행복감과 자존감을 높여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보건소,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 운영 위한 간담회

전주시가 장애인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의료기관 등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12일 평화보건지소 2층에서 사)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꿈드래 장애인협회 전주시지부 등 4개 장애인 기관·단체장과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18개소 의료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친화 의료기관은 장애인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 편리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곳으로, 시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1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1개소당 2000만 원의 사업 예산이 지원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요건 등을 설명하고, △휴게시설 △화장실 진입로 공사, 미끄럼방지턱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사항 △장애인 대기시간 단축 방안 △입원 및 검사 절차 간소화 방안 등 장애인 진료편의서비스 관련 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시는 향후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 뒤 선정위원회를 꾸려 서류 및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 2곳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달 중으로 장애친화 의료기관 모집에 들어가 다음 달 선정하고 사업예산을 교부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성인문해교육 '전주희망학교' 학습꾸러미 전달

전주시가 배움의 기회를 놓쳐 글을 모르는 성인들을 위해 한글교육 학습꾸러미를 전달한다.

시는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시민들이 안전한 학습환경에서 배움의 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성인문해교육 '전주희망학교'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희망학교의 학습꾸러미는 13곳의 비영리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 중 비대면으로 운영 중인 5개소 기관의 학습자에게 전달된다. 비대면 수업은 학습꾸러미를 활용해 전문 교사를 통한 일대일 전화 수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습꾸러미의 경우 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식물을 관찰하고 관찰내역을 적어볼 수 있는 자연과학키트 △동시를 필사하며 한글을 익힐 수 있는 인문교양키트 △퍼즐을 조립하며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키트 등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맞도록 구성됐다.

비대면 교육에 나서는 한 교사는 "대면 교육에 비해 비대면 교육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학습꾸러미를 적극 활용해 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인숙 전주시 인문평생교육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배움의 기회를 놓쳐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의 학습에도 어려움이 생겼다"면서 "어르신들이 배움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비대면 교육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인문해교육 '전주희망학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또는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e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주시평생학습관 전화(063-281-5368)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